

'압도적 1위' 전남, KBF바둑리그 통합 우승 노린다

포스트시즌 오늘 개막...정규리그 다승상 신현석·한유정 활약 기대

전남 바둑이 KBF바둑리그 최종 우승을 향해 달린다.

전국시도바둑리그를 통합한 국내 최고의 바둑제전, 2024 KBF바둑리그 포스트시즌이 18일 개막한다.

경기도 성남 판교 K바둑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이번 리그 포스트 시즌에서는 상위 5위 팀이 스텝 리더 토너먼트 방식으로 단판승부를 갖는다.

앞서 정규리그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전남 팀은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1-3경기 승리팀과 치르는 챔피언결정전을 통해 최종 우승을 노린다.

전남팀은 기명도 단장, 신철호 감독, 남자 선수 김진우·신현석·심해솔·홍근영, 여자 선수 김현아·이루비·한유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1경기에서는 부산 이봉장학회(5위)와 충청북도(4위)가, 2경기에서

1경기 승리팀과 부안 붉은노을(3위)이, 3경기에서는 2경기 승리팀과 부천시(2위)가 맞붙는다.

전남은 오는 26일부터 플레이오프 3경기의 승리팀과 총 3번의 챔피언결정전을 치른다.

"후반으로 갈수록 단단해지는 팀워크"를 전남팀의 강점이라고 밝힌 신철호 감독은 "그 덕분에 이번 정규리그에서도 우승할 수 있었다. 속수에 들어가면 '공동 연구'를 하면서 서로 실력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나는 공부할 분위기만 조성해 줄 뿐이다. 선수들이 매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의 신현석과 한유정의 활약에도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 정규리그에서 각각 9승 1패를 기록하며 다승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 감독은 "신현석 선수는 가장 많은 공부량을 보

여주는 성실한 선수다. 또 한유정 선수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실력이 상승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다. 모두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며 노력하는 선수들이다"고 전했다.

포스트시즌 경기는 다섯판을 동시에 뒀던 정규리그 경기와는 달리 차례로 1-2국, 3국, 4-5국 순으로 진행된다. 남자선수가 1.3-5국을 여자선수가 2-4국을 치르는 방식이다.

신 감독은 "포스트시즌은 경기가 차례로 치러지기 때문에 개인적 기량이 더욱 중요하다.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팀들의 실력은 사실 백지장 한 장 차이인데, 선수들이 부담 갖지 말고 평소 실력을 잘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바둑협회가 주관·주최하는 2024 KBF바둑리그의 포스트시즌 우승팀 상금은 2000만원이다. 또 준우승 1800만원, 3위 1600만 원, 4위 1500만원, 5위 14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2024 KBF바둑리그 정규리그 1위 전남 바둑팀이 최종 우승을 향해 달린다. 왼쪽부터 최병덕 운영위원장, 전남팀 신현석, 한유정, 김현아, 신철호 감독, 홍근영, 김진우, 심해솔, 허영락 코치. <전남도체육회 제공>

'V-리그 화두' 외국인 선수 자유계약제 도입되나

KOVO, 오늘 이사회 개최

프로배구 2024-2025시즌 초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외국인 선수 '자유계약제' 도입 여부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8일 오후 4시 인천 하얏트호텔에서 남녀 14개 구단 단장이 참석하는 이사회를 열고 차기 시즌 운영과 관련한 논의를 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사무국이 우선 내년 1월 4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올스타전 개최 준비 상황을 보고한다.

다음으로 내년 컵대회 개최지(전남 여수) 의결과 2025-2026시즌 V리그 경기 일정 보고가 이어진다.

이번 이사회회의 최대 관심은 외국인 선수 및 아시

아쿼터 선수의 자유계약제 도입 여부다.

정식 안건에는 없지만, 내년 외국인 선수 트리아아웃(공개 선발) 개최 관련 보고 때 자유로로 형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5월 예정된 외국인 선수 트리아아웃은 올해와 같은 튀르키예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아시아쿼터 선수의 경우 트리아아웃 대신 자유계약제를 내년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서 유동적이다.

앞서 여자부 7개 구단 사무국장은 지난 10일 전체 실무위원회가 끝난 후 아시아쿼터의 자유계약제를 우선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아시아쿼터 도입 2년째를 맞았지만, 인재풀의 한계로 현행 트리아아웃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흥국생명에는 올 시즌 개막 직전 아시아쿼터 선수를 아널리스 피치(등록명 피치)로 교체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유니에스가 바티스타(등록명 유니) 퇴출 후 태국 출신의 타나차 쑤삭(등록명 타나차) 영입까지 한 달 넘게 걸렸다.

이와 함께 GS칼텍스는 지난달 29일 흥국생명전에서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스테파니 와일러(등록명 와일러)를 대신할 선수를 찾고 있으나 대체자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여자부 구단들은 아시아쿼터 자유계약 도입에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했다.

사무국장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만큼 단장 이사회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배구연맹은 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 자유계약제 도입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바둑황제' 이창호, 레전드리그 MVP·다승왕

고향 팀 완주 우승 이끌어

고향 팀 수소도시 완주를 레전드리그 우승으로 이끈 '바둑황제' 이창호 9단이 최우수선수(MVP)와 다승왕을 싹쓸이했다.

이창호는 17일 성동구 마장으로 한국기원에서 열린 2024 초팔코사놀 레전드리그 시상식에서 기자단 투표 100%, 온라인 팬 투표 78%(각 50%씩 반영)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MVP로 선정됐다.

레전드리그 데뷔 첫해에 MVP로 뽑힌 이창호는 "첫 출전이라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 팀 우승과 함께 MVP까지 받게 돼 정말 기쁘다"며 "감독님과 팀원들이 편하게 해준 덕분에 결과가 좋았던 것 같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규리그에서 11승 3패를 기록한 이창호는 유창혁 9단과 함께 공동 다승왕도 차지했다.

의정부행복특별시 1지명인 유창혁은 레전드리그에 처음 출전한 2020년부터 5년 연속 다승왕에 올랐다.

감독상은 장단 첫해 수소도시 완주를 우승으로 이끈 정수현 감독에게 돌아갔다.

8개 팀이 참가한 2024 초팔코사놀 레전드리그는 9월 23일 개막년부터 11월 29일 챔피언결정전



2024 레전드리그 MVP로 뽑힌 이창호 9단. <한국기원 제공>

목포스포츠클럽, 전국 우수 지정스포츠클럽 교류전 개최



(사)목포스포츠클럽은 지난 13~15일 남악다목적체육관 등 3곳에서 '전국 우수 지정스포츠클럽 교류전'을 개최했다. 배드민턴 경기에 참여한 마포스포츠클럽 선수단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주송정·서울마포 등 6개 팀 축구·배드민턴 종목 150명 참가

목포에서 전국 우수 지정스포츠클럽 간의 화합과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사)목포스포츠클럽이 지난 13-15일 목포국제축구센터·목포과학대학교체육관·남악다목적체육관 등 3곳에서 '전국 우수 지정스포츠클럽 교류전'을 개최했다.

공공스포츠클럽이 우수 스포츠클럽 간 교류전을 주관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교류전에는 행사를 주최·주관한 목포스포츠클럽을 포함해 서울마포스포츠클럽, 광주송정스포츠클럽, 무안스포츠클럽, 영암군세한스포츠클럽, 곡성스포츠클럽 등 6개 팀의 전문 학생선수단 150명이 참가해 2개 종목(축구·배드민턴)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다.

지난 2020년 공공스포츠클럽에 선정된 목포스포츠클럽은 2023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격상돼

축구·배드민턴·파크골프 종목을 운영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과 스포츠 선순환 시스템 정착 등을 도모하고 있다.

박경래 목포스포츠클럽회장은 "학생 선수들이 지역을 떠나 스포츠로 소통하고 축제 형태로 교류전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국의 지정스포츠클럽간 상호 교류 및 친선대회가 자주 개최돼 학생 선수들이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장애인체육회, 리그전 종목 8→11개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7일 2025년 리그전 운영 종목을 기존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체육회는 2022년 골볼, 럭비, 컬링 등 3개 종목에 리그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했고, 올해엔 보치아, 축구, 배구, 테니스, 아이스하키까지 총 8개 종목으로 규모를 늘렸다.

내년엔 공모 심사를 통해 3개 종목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또는 어울림 리그를 운영하는 종목은 3억원 이내, 전문체육만 운영하는 종목은 2억5000만원 이내, 생활체육 또는 어울림 리그를 운영할 경우 1억5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장애인체육회는 "내년부터는 서류 평가에서 80점 이상 받으면 추가 심사 절차 없이 선정을 확정



휠체어 농구리그 모습.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 2024-12-01(일) ~ 2024-12-22(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12.13(금) 오후 7시 특별공연 (송년의 밤)
 *12.20(금) 오후 7시 특별공연 (명인 협연의 밤)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화첩에 무등을 담다 : 조양희 개인전
 일시 : 2024-12-6(금) ~ 2024-12-2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